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명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조사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장 명 진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조사

김 명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장 명 진

인 준 서

장명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조사하고,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진로지도 및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3곳의 성악전공, 실용음악의 보컬전공, 국악전공 재학생 19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진로성숙도와 진로장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일반적 특성, 진로성숙도, 진로장벽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6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배포한 설문지 중 18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하여 18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독립성(3.96), 확신성, 준비성, 결정성, 목적성(3.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는 실용음악(3.67), 성악(3.48), 국악(3.3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전체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경제적 어려움(3.06), 직업정보 부족, 미래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신체적 열등감, 자기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흥미부족(2.26)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는 국악(2.72), 실용음악(2.64), 성악(2.6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는 r=-.359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로장벽이 진로성숙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흥미부족, 미래불안의 하위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목적성이 낮고, 경제적 어려움을 높은 장벽으로 인식하며, 성악, 실용음악, 국악 전공생들 중에서 특히 국악 전공생들의 진로장벽 해소와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진로장벽이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발달을 가로막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해소하고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 올바른 진로발달단계를 거침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음악대학과 음악 교육계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연구의 제한점 ····· 3
4. 선행연구 고찰 ····· 3

Ⅱ. 이론적 배경 ····· 9
1. 진로와 진로발달이론 ····· 9
2. 진로성숙도 ····· 13
3. 진로장벽 ····· 16
4.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 19

Ⅲ. 연구방법 ····· 24
1. 연구대상 ····· 24
2. 연구절차 ····· 25
3. 연구도구 ····· 25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29

Ⅳ. 연구결과 및 분석 ····· 31
1.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 ····· 31
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장벽 ····· 33
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36
4. 연구결과 ····· 45

Ⅴ. 결론 ····· 48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차

<표 Ⅱ-1> 진로성숙도 측정도구 종류 ····· 15
<표 Ⅱ-2> 음악전공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 ····· 20
<표 Ⅱ-3> 2013~2017년 음악전공 졸업자 수와 취업률 현황 ····· 21
<표 Ⅱ-4> 2017년 졸업자 전공별 졸업상황 ····· 22
<표 Ⅲ-1> 연구대상 ····· 24
<표 Ⅲ-2> 연구절차 ····· 25
<표 Ⅲ-3> 연구도구 ····· 26
<표 Ⅲ-4> 진로성숙도 하위요인과 신뢰도 측정결과 ····· 27
<표 Ⅲ-5> 진로장벽 하위요인과 신뢰도 측정결과 ····· 29
<표 Ⅳ-1>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 31
<표 Ⅳ-2>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 32
<표 Ⅳ-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 34
<표 Ⅳ-4>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 35
<표 Ⅳ-5>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 37
<표 Ⅳ-6>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38
<표 Ⅳ-7>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39
<표 Ⅳ-8>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 ····· 40
<표 Ⅳ-9>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 ····· 41
<표 Ⅳ-10>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43
<표 Ⅳ-11>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 4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된 이래로 정부의 노력에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의 위축과 고학력 소지자의 미취업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년대비 1.5%p감소하였고, 특히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이 63.0%p로 모든 계열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1] 이는 예체능계열에 속하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청년실업률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고한다.

이기학과 한종철은 직업 및 진로란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2] 대표적인 진로발달이론가인 수퍼(Super, D. E.)는 진로발달이 다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중에서도 대학생이 해당하는 탐색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이 시기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아를 확립하고 직업탐색을 시도하여 직업선택을 명료화 및 구체화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3] 즉, 우리는 진로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대학생 시기에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결정, 준비와 실행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눈앞의 입시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대학의

---

1)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www.kedi.re.kr/. (2019. 4월 접속)
2) 이기학·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p.248.
3)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p.53.

명성을 쫓아 혹은 성적에 맞춰 대학을 결정하고 진학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방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전공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경우 이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결정하고 한 우물만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진로선택에 대해 심각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직면하게 된다.

한편, 정환호의 연구결과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진로장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희망진로와 실제 선택하게 될 진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취업과 진로에 있어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4]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5] 따라서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성숙도를 높여 올바른 진로준비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조사하고, 두 변인 간 상관관계와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진로지도 및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4) 정환호(2016).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1.

5) 장이슬·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p.385.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는 어떠한가?

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장벽은 어떠한가?

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은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 3곳의 음악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음악전공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음악전공 대학생과 더 넓은 범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진로장벽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진로성숙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대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조사한 고라희[6]는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설문지는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최종 13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 전체의 진로성숙도는 결정성이 가장 높게, 독립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음대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할 때 독립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또,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차이가

6) 고라희(2016).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공별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성악과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라희는 기악, 성악전공 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취업 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만, 진로선택에 있어 자신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밝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할 시에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피아노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인식과 학년, 진로 준비상황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조사한 이보현[7]은 서울 소재 음악대학 3곳의 피아노 전공생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는 총 54개 문항으로 최종분석에는 121부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높게 나타난 반면, 진로계획여부, 진로에 대한 관심도, 진로준비 시작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독립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이보현은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하였다.

음대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차혜윤[8]은 음악대학 3학년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그중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에 대해서는 전공교과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인식만족과 학과인식만족이 가장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는 독립성이 가장 높고 결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고라희와 이보현의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독립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전공만족도

7) 이보현(2013).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 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차혜윤(2017).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는 서로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대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로는 한정된 직업에 따른 취업의 불안정성이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과 함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차혜윤은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대생들의 전공에 따른 전공 선택요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를 조사하여 전공별 차이에 관해 연구한 홍지연[9]은 건반악기, 관악, 현악, 성악, 작곡 전공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전공선택동기에서는 모든 전공에서 내부 및 경험적 요인과 재능적 요인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별 차이는 환경적, 개별적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전공만족도에서는 인식만족도에 비해 진로의 방향성 및 안정성이 낮게 나타나 음대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전공만족도에 있어 전공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관악기 집단이 낮은 평균을 보였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여러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전공선택동기나 전공만족도와 달리 모든 하위요인에서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장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대생들의 진로장벽을 조사하고 그것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이슬[10]은 음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우유부단함과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이 가장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음대생을 위한 진로교육에서 결정성의 영역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차혜윤의 연구와

9) 홍지연(2018).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7(2). pp. 265~290.

10) 이슬(2016).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변인 모두에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음대생들의 진로장벽이 그들의 진로계획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진로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졸업 후 희망 진로, 실제 선택하게 될 진로, 진로장벽요인을 조사한 정환호[11]는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전공생 39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종 381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음대생들의 전공선택 요인으로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재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요인을 배제한 희망진로와 졸업 후 실제 선택하게 될 직업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진로에 대한 정보부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환호는 음대생들이 진로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학은 학생들에게 실용적 정보제공과 진로 다양성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밝히고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 최숙현[12]은 대학생 27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포부와 진로태도성숙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진로포부와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숙현의

11) 정환호(2016). 앞의 글.
12) 최숙현(2007).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을 정적요인과 부적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후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직업정보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음악 전공생들의 취업진로선택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김태경[13]은 수도권 소재 실용음악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재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이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률을 뚫고 실용음악과에 진학했지만,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 관련 과목의 신설을 희망하면서도 개인의 예술적 능력 부족이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며, 예술적 능력 발달이 교과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학생들이 진로에 있어 아직 한정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김태경은 실용음악 전공생들이 광범위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학생들 또한 진로와 취업 준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용음악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 실태와 전공만족도,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양은주[14]는 실용음악 전공생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은 다른 변인들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와 전공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이로써 진로준비행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13) 김태경(2016). 실용음악 전공생들의 취업진로선택에 관한 인식도 연구 -수도권 소재 대학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양은주(2017).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예술교육연구. 15(4). pp.55~74.

는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양은주는 학생들의 학습몰입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수전략이 요구되고, 교수와 학생의 1:1 전공 수업의 특성상 교수들이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학생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 고찰결과 음대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시도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에 있어 음악전공자에 대한 범위가 대체로 서양음악 전공자에만 국한되어있고, 실용음악전공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성숙도를 높여야 올바른 진로 결정을 통해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음악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함께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양음악의 성악전공, 실용음악의 보컬 전공, 국악 전공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조사하고 두 변인 간 상관관계와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진로지도 및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와 진로발달 이론

가. 진로의 개념 및 정의

진로(career)의 어원은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뜻의 'carro'에서 유래되었다.[15] 진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비슷하면서도 다양한데, 1950년대 진로발달이론가들은 진로의 개념을 직업선택과 직장생활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직업 이외의 활동들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16] 호이트(Hoyt, K. B.)는 진로란 "인간이 일생을 통해 하는 일을 총칭하는 말로서, 그것은 삶의 중핵이며 인간이 목표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였다.[17] 김계현은 진로란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들"로서 직업적 경력이 의미하는 과거적인 뉘앙스와 앞으로의 생애에서 모든 단계를 통해 쌓아가야 할 '행로'라는 개념도 내포된 미래지향적인 용어라고 하였다.[18] 김충기와 장선철은 진로가 생애·경력·직업 등으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장래·미래에 대한 전망 등으로 인식되며, 생애 직업발달, 과정, 내용을 모두 뜻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하였다.[19]

이들을 종합하면 진로란 개인이 일생을 통해 진로발달단계를 거치며 자아와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모든 활동이

---

15)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파주: 정민사. p.11.
16) 이희영(2003). 앞의 글. pp.20~21.
17)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위의 글. pp.11~12.
18)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9). **학교진로상담 제2판**. 서울: 학지사. p.18.
19) 김충기·장선철(2006).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p.15.

라고 할 수 있다.

나. 진로발달이론

1) 긴즈버그의 직업(진로)발달이론

긴즈버그(Ginzberg, E.)는 특성-요인이론가들의 주장과 달리, 직업선택은 특정 시기에 해야 하는 한 번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10대에서 20대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발달과정으로, 세 개의 단계를 걸치고 비가역적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직업선택은 개인 내적 요인과 외부환경 간의 상호작용, 쉽게 말해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의 이론의 발달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20]

첫째, 환상기(Fantasy period: 6~10세)에는 능력 등의 현실여건은 무시한 채 개인의 욕구에 충실한 선택을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원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1]

둘째, 잠정기(Tentative period: 11~17세)에는 흥미, 능력, 가치와 같은 요소가 고려되기 시작하지만 아직 현실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이 단계는 흥미단계, 능력단계, 가치단계, 전환단계로 세분된다.[22]

셋째, 현실기(Realistic period: 18세~22세)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간의 타협을 통해 현실적인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탐색단계, 구체화단계, 특수화단계로 세분된다.[23]

긴즈버그는 연구를 지속해가면서 자신의 이론에 약간의 수정을 시도했는데 직업선택은 진로가 결정된 후에도 직업적 삶과 공존하는 제한이 없는 과정이고, 직업선택 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진로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

20) 이희영(2003). 앞의 글. pp.29~31.
21)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글. p.57.
22)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글. p.57.
23)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글. p.58.

며, 직업선택에 있어 타협이라는 정적인 개념보다 최적화라는 역동적 개념이 더 적합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긴즈버그의 이론은 직업선택의 문제를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직업성숙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24]

2) 수퍼의 진로발달이론

수퍼(Super, D. E.)는 긴즈버그의 이론에 대해 비판점을 제기하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긴즈버그와 달리 직업선택과 적응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제한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 진로발달은 개인과 사회 환경 즉, 자아개념과 현실이 타협하고 상호작용하는 적응과정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직업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발달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수퍼이론의 진로발달단계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5]

첫째, 성장기(Growth Stage: 출생~14세)때의 아동은 주변의 주요 인물들과 그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초반에는 욕구와 환상에 충실하지만 사회참여와 현실검증이 증가하면서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성장기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세분화 된다.[26]

둘째, 탐색기(Exploration Stage: 15~24세)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이 속하는 단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아검증, 역할수행, 직업탐색을 시도한다. 이 단계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구분된다. 수퍼는 특히 탐색기에 집중하여 진로성숙의 개념을 창안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진시키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27]

셋째,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25~44세)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24) 이희영(2003). 앞의 글. pp.37~39.
25) 이희영(2003). 앞의 글. pp.41~49.
26) 김충기·장선철(2006). 앞의 글. p.43.
27) 이희영(2003). 앞의 글. pp.52~53.

발견하고 종사하면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며, 시행기와 안정기로 구분된다.[28]

넷째, 유지기(Maintenance Stage: 45~65세)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에 머물며 여태껏 성취한 것들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29]

다섯째, 쇠퇴기(Disengagement Stage: 65세 이상)에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약해지면서 직업 세계에서도 은퇴하여 새로운 역할을 찾고자 한다.[30]

수퍼의 이론은 자아개념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론이 가지는 지나친 포괄성 때문에 그의 이론에서 중요시되는 자아개념, 발달단계, 발달과업이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의 비판점을 가진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퍼의 이론은 진로발달이론 중에서 직업적 성숙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과 실증적 자료 역시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가진다.[32]

3) 크리테스의 진로발달이론

크리테스(Crites, J. O.)는 수퍼가 제시한 진로선택의 일관성과 현실성에다가 능력과 태도라는 두 가지 요인을 첨가하여 새로운 진로성숙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일관성과 현실성은 진로선택의 내용영역으로, 능력과 태도는 진로선택의 과정영역으로 포함되었다. 크리테스는 이 네 가지 집단요인을 바탕으로 16개의 변인들을 설정하고, 특히 과정영역에서 능력과 태도를 동시에 측정하는데 주력하였다.[33] 그는 태도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

---

28) 이희영(2003). 앞의 글. pp.53~54.
29) 이희영(2003). 앞의 글. pp.54~55.
30) 이희영(2003). 앞의 글. p.55.
31) 이희영(2003). 앞의 글. pp.58~61.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글. p.65.
32)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9). 앞의 글 p.87.
33) 김충기·장선철(2006). 앞의 글. p.52.

하고 직업발달도 검사(Vocational Development Inventory)라고 이름 붙였으나, 후에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라고 수정하고 내용도 일부 보완하였다.[34]

지금까지 살펴본 진로발달 이론가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은 직업생애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고, 각 단계에는 발달과제와 진로행동이 포함된다.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진로성숙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점, 구인을 추출하고 측정함으로써 진로발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한 점, 여러 진로이론들의 장점을 포괄하고 진로발달을 생애발달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35]

2. 진로성숙도

가. 진로성숙도의 개념 및 정의

진로성숙에 대한 개념은 카터(Carter, H. D.)와 스트롱(Strong, E. K. Jr.)의 연구부터 시작되었지만 직업선택을 단일 의사결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피하기 위해 직업성숙과 같은 용어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디싱거(Dysinger, W. S.)에 의해서였다. 수퍼와 크리테스는 진로성숙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수퍼는 진로성숙을 절대적 정도와 상대적 정도로 구분하였고, 크리테스는 정도와 비율로 구분하였다.[36]

수퍼는 진로성숙을 “탐색기로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준

34) 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p.22~23.
35) 김충기·장선철(2006). 앞의 글. p.53.
36) 이희영(2003). 앞의 글. pp.66~67.

거를 마련하였다. 진로성숙Ⅰ(CMⅠ)은 개인의 생물학적 연령에 의해 기대되는 진로발달 정도와 개인의 실제 진로발달 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진로성숙Ⅱ(CMⅡ)는 개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발달과업에 대해 보이는 행동과 동일한 발달과업을 맞이한 타인의 행동을 비교하여 평가한다.[37]

크리테스는 수퍼의 정의를 비판하며 정도와 비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진로성숙을 재정의하였다. 정도로서의 진로성숙은 한 개인의 진로행동과 그 개인이 속해있는 진로발달단계에서 가장 나이 든 사람의 진로행동 간의 유사성으로 측정된다. 비율로서의 진로성숙은 개인의 직업행동의 성숙정도와 그 개인과 동일한 연령인 집단의 직업행동의 성숙정도를 비교하여 측정된다. 전자는 CMⅠ에, 후자는 CM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진로성숙은 CMⅡ를 의미한다.[38]

진로성숙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내에서 내려진 정의를 살펴보면 김현옥은 “진로의식, 탐색, 의사결정에서의 발전적 변화의 개념으로서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가는 준비의 정도”라고 하였다.[39] 김충기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직업성숙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배양하며 직업적 성숙의 결과를 낳는 과정”이라고 하였다.[40]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하였다.[4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

37) 이희영(2003). 앞의 글. pp.69~70.
이기학·한종철(1997). 앞의 글. p.222.
38) 이희영(2003). 앞의 글. pp.70~71.
39)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
40) 김충기(1981). **생애교육**. 서울: 시공사. p.121.
41) 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앞의 글. p.28.

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라고 하였다.[42]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진로성숙도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발달의 차원에서 자신과 동일한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진로탐색, 준비, 결정, 실행의 정도이다.

나. 진로성숙도 측정도구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로는 CDI, CMI, 진로성숙도검사, 진로성숙태도검사가 대표적이다. 각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Ⅱ-1>과 같다.

<표Ⅱ-1> 진로성숙도 측정도구 종류[43]

측정도구명	개발자	대상	구성	
진로발달 검사 (CDI)	수퍼	중2~고3, 대학생	진로성향	진로계획, 진로탐색, 의사결정,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성숙 검사 (CMI)	크리테스	초6~고3	태도척도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능력검사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계획, 문제해결
진로성숙도 검사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중2~고3	태도검사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능력검사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선택, 의사결정
진로성숙 태도검사	이기학, 한종철	고등학생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42) 임언·정윤경·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5.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과 한종철의 진로성숙태도검사를 기초로 약간의 수정을 통해 연구도구를 제작하였다. 이 검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44] 특성-요인이론과 발달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측면과 진로태도의 성숙(발달)과정을 함께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 이 검사에서는 진로태도에 대하여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구인을 설정하였다.[45] 각각의 구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의 연구방법에서 기술하였다.

3. 진로장벽

가. 진로장벽의 개념 정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지지하고 응원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자녀의 진로 결정을 반대함으로써 장벽이 될 수도 있다.[46] 이처럼 진로장벽이란 진로와 연관된 다양한 경험들로 진학, 취업, 직장생활, 승진, 이직 등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설정, 동기부여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을 통칭한다.[47]

---

43) 이희영(2003). 앞의 글. pp.90~98.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9). 앞의 글. pp.254~255.
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앞의 글. p.51.
이기학·한종철(1997). 앞의 글. pp.226~227. (재구성)
44) 이기학·한종철(1997). 앞의 글. p.220.
45) 최숙현(2007). 앞의 글. pp.29~31.
46) 송원영·김지영(2013).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통한 대학생의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pp.134~135.
47) 황매향·김연진·이승구·전방연(2011).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2판 - 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

진로장벽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복잡한 진로발달과 진로결정과정을 이룬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진로장벽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진로장벽이 아닌 지각된 장벽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것이 여성의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48]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진로장벽의 적용 가능성을 여성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까지 확장했다.[49]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크리테스는 진로장벽이란 직장에서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이라고 하였다. 스완손과 오이트케(Swanson, J. L. & Woitke)는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혹은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국내에서는 대개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50] 손은령은 진로장벽을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51]이라고 정의하였고, 장이슬과 송병국은 “개인이 진로발달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52]으로 정의하였다.

아스틴(Astin, H. S.)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고 진로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 방향에 있어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3] 진로장벽을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트프레드슨(Gottfredson, L. S.)은 개인 내적특성과 외부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장애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진로장벽으로 보았고, 이 진로장벽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54] 그는 개인의

오-. 서울: 학지사. p.185.

48)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2(2). pp.251~252.

49)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

50) 장이슬·송병국(2015). 앞의 글. p.368.

51)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

52) 장이슬·송병국(2015). 앞의 글. p.368.

53) 손은령(2001). 위의 글. p.252.

자아개념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으로하여금 목표를 타협하게 하고 선택의 폭을 좁히도록 한다고 하였다.[55]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로장벽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진로장벽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정도와 방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없애거나 그 정도를 수정함으로써 개인의 진로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진로장벽이란 진로발달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선택과 결정, 계획 등의 진로행동을 방해하는 개인 내적·외부 환경적 장애 요인을 통칭하는 말로, 개인에게 지각되는 정도와 방향에 따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나. 진로장벽의 종류

진로장벽은 이분법적 분류, 삼분법적 분류, 다원분류의 방법으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이분법적 분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진로장벽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내적 요인은 자아개념, 성취감, 가치관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외적 요인은 사회·경제·문화의 구조, 직장에서의 차별, 근무조건과 같은 외부환경에서 나타나는 장벽을 말한다.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츠(Betz, N. E.)는 낮은 자존감 및 자아효능감, 진로갈등 등이 여성의 내적 요인에 해당되고, 성역할 고정관념, 직업적 고정관념, 교육에 있어서의 성 편견, 교육장벽, 인종차별 등이 외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56]

이분법적 분류는 단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적·외적

54) 김은영(2001). 앞의 글. p.5.
55) 손은령(2001). 앞의 글. p.253.
56) 황매향·김연진·이승구·전방연(2011). 앞의 글. p.186.

요인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스완손과 토커(Tokar)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장벽을 태도 장벽, 사회적·대인적 장벽, 상호작용적 장벽의 삼분법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태도 장벽은 자아개념, 적성, 직업에 대한 태도 등 내적 요인들이 해당된다. 사회적·대인적 장벽은 현재의 가족, 미래의 가족계획 등 진로와 가사를 병행하고자 할 경우 지각되는 장벽이다. 상호작용적 장벽은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인종)이나 진로교육, 진로경험 등이 해당된다.[57]

다원분류는 앞서 살펴본 분류법들과 달리 특정한 틀에 맞추어 진로장벽을 해석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지각되는 진로장벽들을 토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한다. 스완손과 토커는 진로장벽검사(CBI)를 개발하고 18개의 하위척도를 설정하였는데 최근까지 수정을 거쳐 13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되었다.[58] 국내 연구에서는 대개 다원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다원분류법을 사용하였다.

4.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가. 음악전공과 관련된 진로의 종류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출간한 『대학 전공별 진로가이드 음악학과편』에는 음악전공 대학생이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으로 총 102개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직업의 분야와 종류는 <표Ⅱ-2>와 같다.

57) 황매향·김연진·이승구·전방연(2011). 앞의 글. p.186.
58) 송원영·김지영(2013). 앞의 글. p.136.

<표Ⅱ-2> 음악전공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59)]

분야	직업의 종류
교육	중등음악교사, 발성교정교사, 음치교정교사, 가정방문음악교사, 방과후음악교사, 영유아음악교사, 영유아놀이교실음악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국악지도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우쿠렐레교사, 사회예술음악강사, 아마추어 성악지도자, 입시음악지도자, 오페라감상교육자, 클래식성악교실지도자, 클래식이론지도자, 피아노실기지도자, 클래식이론지도자, 피아노실기지도자, 합창단발성지도자, 레크레이션강사, 동요지도자, 가요교실강사, 음악학원강사, 보컬트레이너, 음악전공교원, 오페라음악코치, 실버합창단지도자, 기업 내 직원합창단 코치
공연 활동	하우스매니저(공연장관리자), 성우, 뮤지컬배우, 가수, 성악가, 합창단원, 오페라단 단원, 해외오페라가수, 교향악단단원, 뮤지컬 오케스트라단원, 오페라단 오케스트라단원, 실내악합주단, 성악반주자, 합창반주자, 무용반주자, 교향악단소속 피아니스트, 종교단체소속 피아니스트, 오케스트라지휘자, 합창지휘자, 이벤트전문가수, 이벤트전문연주자, 오페라전문조명기사, 건축음향관리자, 무대음향기사, 공연분장사, 연극배우, 종교음악가
창작 활동	오페라연출가, 음반기획자, 오페라단캐스팅디렉터, 클래식작곡가, 가요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연극음악연출가, 무대음악연출가, 방송음악연출가, 음악분수연출자, 오페라무대디자이너, 사운드디자이너, 무대음향감독, 드라마음악감독, 음악방송작가
조사·연구	음악전문기자, 오페라평론가, 음악이론연구원, 클래식음악해설사, 오페라스코어번역가, 음악국제행사전문통역사, 음악서적번역가, 음성·음색연구원, 음악교육연구원, 언어치료사, 음악심리치료사
광고·홍보·마케팅	매장음악선국전문가(음악컨설턴트), 문화사업기획자, 악기제작 및 판매원, 연주의상 대여 및 판매원, 공연전문인쇄물디자이너, 문화국제교류담당자
문화예술 경영	음악교재출판기획사무원, 문화행사음악기획자, 녹음시설업체운영자, 만화음악제작자, 영화음악제작자, 특수효과음향제작자, 공연전문인쇄물제작자, 음악방송PD, 모발일음원제작자, 행사음악기획자
서비스	리포터, 아나운서, 합창단담당자(사무직원), 악기수리원, 조율사, 음악저작권관리자

<표Ⅱ-2>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관련 직업이라 하더라도 연주활동 외의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졸

59) 박지현·조영일·신희망·장선화·안소라(2015).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음악학과편**.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pp.24~31.

업 후 진로의 범위는 연주자와 학원경영 또는 강사, 대학원 진학, 중등음악 교사 등으로 제한적이다. 정환호의 연구에서도 연구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음악대학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희망하는 진로가 연주자인 것에 비해 순수예술 공연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고, 따라서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 가능한 진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꼽았다.[60]

나. 음악전공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현황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해마다 대학(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진학상황 등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표Ⅱ-3> 2013~2017년 음악전공 졸업자 수와 취업률 현황[61]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음악대학 졸업자 수 (N)	6,018	6,018	6,245	6,077	6,011
음악대학 취업률 (%)	22.9	43.4	44.6	48.4	49.2
대학 전체 평균 취업률 (%)	54.8	64.5	64.4	64.3	62.6

<표Ⅱ-3>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계열의 취업률은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승률이 미세하고 매년 6천 명 이상의 음악전공 졸업자가 발생하지만 5년 연속 대학 전체 취업률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정환호(2016). 앞의 글. p.30, p.77.

6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졸업 후 진로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2017년도 졸업자들의 졸업상황을 전공별로 비교해보면 <표Ⅱ-4>와 같다.

<표Ⅱ-4> 2017년 졸업자 전공별 졸업상황[62)]

구분	졸업자	졸업상황									
		취업률 (%)	합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진학률 (%)
				교외	교내						
인문	42,344	55.4	19,925	16,134	1,015	391	4	6	272	2,103	7.7
사회	96,901	60.6	54,310	48,450	1,639	522	12	3	718	2,966	2.5
교육	16,549	46.8	7,161	5,751	332	12	1	55	80	930	3.8
공학	80,875	67.7	48,488	45,377	713	290	11	5	407	1,685	9.5
자연	39,718	59.1	19,284	16,611	770	88	70	9	290	1,446	15.7
의약	23,073	83.6	18,518	18,071	121	8	2	-	63	253	2.3
예체능	36,186	61.3	19,799	12,956	769	155	6	1,189	650	4,074	6.0
총계	335,646	62.6	187,485	163,350	5,359	1,466	106	1,267	2,480	13,457	6.8

<표Ⅱ-4>를 보면 음악이 속해있는 예체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열들이 총계(62.6%)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취업자의 구분 중 개인창작활동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의 비율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의 졸업자들이 다른 계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6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예체능계열 졸업자들의 실제 직장 취업률은 타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음악전공의 취업률은 49.2%로 미술과 체육 등이 포함된 예체능계열 중에서 가장 낮은 취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대학 전체 계열별 취업률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중등교육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 대비 취업률 상승폭 Top 7에 '성악'과 '기타음악'이 이름을 올렸음에도 음악계열의 취업률이 전체 계열 중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는 점은 음악전공 졸업자들의 막막한 취업 현실을 가늠하게 한다.[63]

한편 유지취업률이란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졸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했음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 전체의 유지취업률은 전년 대비 올라갔지만, 계열별로 비교했을 때는 1차와 4차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예체능계열이 19.4%로 전체 계열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64] 이를 통해 예체능계열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6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취업통계조사 브로셔.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64)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취업통계조사 브로셔.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총 3곳의 성악, 국악, 실용음악(보컬) 전공에 재학 중인 대학생 19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18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184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Ⅲ-1> 연구대상

구분		빈도(명)	구성 비율(%)
성별	여자	142	77.2
	남자	42	22.8
학년	1학년	41	22.3
	2학년	62	33.7
	3학년	47	25.5
	4학년	34	18.5
전공	성악	64	34.8
	국악	59	32.1
	실용음악(보컬)	61	33.2
총계		184	100.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Ⅲ-1>과 같이 총 184명 중 성별은 여자 142명(77.2%), 남자 42명(22.8%)으로 음악대학의 특성상 여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학년의 경우 2학년 62명(33.7%), 3학년 47명(25.5%), 1학년 41명(22.3%), 4학년 34

명(1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은 성악 64명(34.8%), 실용음악 61명(33.2%), 국악 59명(32.1%)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절차는 준비, 설계, 수행, 분석 및 정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연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연구절차

연구절차	연구일정	연구내용
준비	2019. 4	· 연구주제 선정 ·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설계	2019. 4	·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문제 수립 · 이론적 배경 고찰 · 연구대상 섭외
수행	2019 .4 ~ 2019. 5	· 설문지 제작 · 설문지 타당성 검증 및 사전조사 · 설문지 수정 및 최종본 완성 · 설문지 배포 및 수집
분석 및 정리	2019. 5 ~ 2019. 6	· 설문지 수집자료 코딩 · 자료 통계처리 및 분석 · 연구결과 해석 및 결론도출 · 논문작성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Ⅲ-3>과 같다. 최종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Ⅲ-3> 연구도구

구분	하위영역	문항 수	합계
일반적 특성	성별	1	3
	학년	1	
	전공	1	
진로성숙도	결정성	5	25
	목적성	5	
	확신성	5	
	독립성	5	
	준비성	5	
진로장벽	대인관계 어려움	5	40
	자기명확성 부족	5	
	경제적 어려움	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5	
	직업정보 부족	5	
	신체적 열등감	5	
	흥미부족	5	
	미래불안	5	
총계			68

<표Ⅲ-3>과 같이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진로성숙도, 진로장벽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68문항이다. 연구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문항은 전공에 따라 진로성숙도와 진로장벽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구성한 문항으로 성별, 학년, 전공을 묻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문항은 이기학과 한종철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참고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인 음악전공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직접 수정 및 보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은 결정성(5개 문항), 목적성(5개 문항), 확신성(5개 문항), 독립성(5개 문항), 준비성(5개 문항)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피검자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성숙도 문항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Cronbach's α =.839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측정 결과는 <표Ⅲ-4>와 같다.

<표Ⅲ-4> 진로성숙도 하위요인과 신뢰도 측정결과 (*이 붙은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하위요인	정의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결정성	개인의 진로 방향에 대한 확고성	1, 2*, 3, 4, 5*	5	.783
목적성	진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내용	6*, 7*, 8*, 9*, 10	5	.660
확신성	진로선택을 통한 성공 여부에 대한 믿음	11, 12, 13, 14, 15	5	.637
독립성	진로 결정에 대한 주체적 태도	16, 17, 18, 19*, 20*	5	.793
준비성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준비 및 계획하는 태도	21, 22, 23, 24, 25	5	.639
총계			25	.839

각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택하고자 하는 진로와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측정한다.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 준비 및 계획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측정한다. 독립성은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진로문제를 결정할 때 주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를 측정한다. 목적성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차원”으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 보상과 같은 현실적 가치와 자기개발, 사회봉사와 같은 내적 가치 중 어떤 부분을 더 추구하는가를 측정한다. 확신성은 “자신의 진로선택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택한 진로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측정한다.[65]

다. 진로장벽

진로장벽에 관한 문항은 김은영이 스완손과 토커가 만든 ‘진로장벽 검사도구(CBI)’를 기초로 하여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탐색 장애검사(KCBI)’를 참고하였다. KCBI에서는 진로장벽을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 정보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의 총 아홉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66]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나이문제’가 진로장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총 8개의 요인을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장벽에 관한 문항 역시 음악전공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직접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에 관한 문항은 8

65) 이기학·한종철(1997). 앞의 글. pp.226~227.
66) 김은영(2001). 앞의 글.

개의 하위영역별로 5개씩 문항을 구성하여 총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진로성숙도와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장벽 문항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Cronbach's α =.657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측정 결과는 <표Ⅲ-5>와 같다.

<표Ⅲ-5> 진로장벽 하위요인과 신뢰도 측정결과 (*이 붙은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대인관계 어려움	1*, 2, 3*, 4, 5*	5	.657
자기명확성 부족	6*, 7, 8, 9, 10*	5	.748
경제적 어려움	11*, 12, 13, 14, 15*	5	.792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6*, 17, 18, 19, 20*	5	.655
직업정보 부족	21*, 22, 23, 24, 25*	5	.732
신체적 열등감	26*, 27, 28, 29, 30*	5	.625
흥미부족	31*, 32, 33, 34, 35*	5	.804
미래불안	36*, 37, 38, 39, 40*	5	.813
총계		40	.657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응답을 보인 5부는 제외하였고, 총 184부의 자료를 SPSS WIN Ver 23.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001$, $p<.01$, $p<.05$에서 검증하였고,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장벽,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양음악의 성악전공, 실용음악의 보컬전공, 국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조사하고 두 변인이 서로 어떤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각 전공별 진로성숙도와 진로장벽을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

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전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표Ⅳ-1>과 같다. <표Ⅳ-1>과 같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평균 3.5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평균은 독립성(3.96), 확신성(3.73), 준비성(3.59), 결정성(3.13), 목적성(3.11)순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독립성이 가장 높고, 목적성이 가장 낮았다.

<표Ⅳ-1>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M	SD
결정성	184	1.00	4.60	3.13	.65
목적성	184	1.00	4.60	3.11	.70
확신성	184	1.00	5.00	3.73	.68
독립성	184	1.00	5.00	3.96	.63
준비성	184	1.00	5.00	3.59	.61
진로성숙도 전체	184	1.00	4.64	3.50	.46

나.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67]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는 <표Ⅳ-2>와 같다. <표Ⅳ-2>와 같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 수준은 실용음악(3.67), 성악(3.48), 국악(3.36) 순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Ⅳ-2>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결정성	성악	64	3.15	.61	3.281*	.040	b>a>c
	실용음악	61	3.26	.62			
	국악	59	2.96	.69			
	합계	184	3.13	.65			
목적성	성악	64	3.06	.70	9.109***	.000	b>a>c
	실용음악	61	3.40	.54			
	국악	59	2.88	.75			
	합계	184	3.11	.70			
확신성	성악	64	3.65	.64	3.922*	.022	b>a>c
	실용음악	61	3.93	.68			
	국악	59	3.62	.67			
	합계	184	3.73	.68			
독립성	성악	64	3.93	.59	4.359*	.014	b>a>c
	실용음악	61	4.14	.67			
	국악	59	3.81	.61			
	합계	184	3.96	.63			
준비성	성악	64	3.62	.59	.438	.646	
	실용음악	61	3.62	.63			
	국악	59	3.53	.62			
	합계	184	3.59	.61			
진로성숙도 전체	성악	64	3.48	.41	7.517***	.001	b>a>c
	실용음악	61	3.67	.42			
	국악	59	3.36	.49			
	합계	184	3.50	.46			

** p<.05, **p<.01, ***p<.001*

67) <표Ⅳ-2>에서 a는 성악, b는 실용음악, c는 국악을 의미한다.

전공별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면, 결정성의 경우 실용음악(3.26)이 높고, 국악(2.96)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목적성의 경우 실용음악(3.40)이 높고, 국악(2.88)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확신성의 경우 실용음악(3.93)이 높고, 국악(3.62)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독립성의 경우 실용음악(4.14)이 높고, 국악(3.81)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준비성의 경우 성악과 실용음악이 높고, 국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장벽

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전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수준은 <표Ⅳ-3>과 같다. <표Ⅳ-3>과 같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수준은 평균 2.66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평균은 경제적 어려움(3.06), 직업정보 부족(2.95), 미래불안(2.95), 대인관계 어려움(2.66), 신체적 열등감(2.59), 자기명확성 부족(2.48),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2.30), 흥미부족(2.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8가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며, 비교적 가장 적게 인식하는 것은 흥미부족이었다.

<표Ⅳ-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M	SD
대인관계 어려움	184	1.40	5.00	2.66	.60
자기명확성 부족	184	1.00	5.00	2.48	.63
경제적 어려움	184	1.00	5.00	3.06	.77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84	1.00	5.00	2.30	.66
직업정보 부족	184	1.20	5.00	2.95	.72
신체적 열등감	184	1.00	4.60	2.59	.67
흥미부족	184	1.00	4.20	2.26	.72
미래불안	184	1.00	5.00	2.95	.80
진로장벽 전체	184	1.40	5.00	2.66	.60

나.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장벽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68]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는 <표Ⅳ-4>와 같다. <표Ⅳ-4>와 같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장벽 수준은 국악(2.72), 실용음악(2.64), 성악(2.6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68) <표Ⅳ-4>에서 a는 성악, b는 실용음악, c는 국악을 의미한다.

<표Ⅳ-4>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대인관계 어려움	성악	64	2.63	.56	.380	.684	
	실용음악	61	2.64	.63			
	국악	59	2.72	.61			
	합계	184	2.66	.60			
자기명확성 부족	성악	64	2.45	.59	.549	.578	
	실용음악	61	2.43	.62			
	국악	59	2.55	.69			
	합계	184	2.48	.63			
경제적 어려움	성악	64	3.21	.82	1.994	.139	
	실용음악	61	3.02	.77			
	국악	59	2.94	.70			
	합계	184	3.06	.77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성악	64	2.27	.74	.154	.857	
	실용음악	61	2.33	.62			
	국악	59	2.31	.62			
	합계	184	2.30	.66			
직업정보 부족	성악	64	2.93	.71	.106	.900	
	실용음악	61	2.94	.77			
	국악	59	2.98	.67			
	합계	184	2.95	.72			
신체적 열등감	성악	64	2.58	.70	1.702	.185	
	실용음악	61	2.49	.58			
	국악	59	2.72	.72			
	합계	184	2.59	.67			
흥미부족	성악	64	2.22	.73	4.586*	.011	c>a>b
	실용음악	61	2.09	.74			
	국악	59	2.47	.63			
	합계	184	2.26	.72			
미래불안	성악	64	3.16	.74	4.121*	.018	a>c>b
	실용음악	61	2.75	.80			
	국악	59	2.95	.82			
	합계	184	2.95	.80			
진로장벽 전체	성악	64	2.63	.56	.380	.684	
	실용음악	61	2.64	.63			
	국악	59	2.72	.61			
	합계	184	2.66	.60			

** p<.05, **p<.01, ***p<.001*

전공별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대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흥미부족의

경우 국악(2.47)이 높고, 실용음악(2.09)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미래불안의 경우 성악(3.16)이 높고, 실용음악(2.75)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 외의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신체적 열등감에 대한 전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가.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359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진로장벽의 하위변인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의 경우에도 모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관계를 세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Ⅵ-5>와 같다.

<표Ⅳ-5>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	준비성	진로성숙도 전체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 불안	진로장벽 전체
결정성	1														
목적성	.372***	1													
확신성	.365***	.203***	1												
독립성	.391***	.433***	.435***	1											
준비성	.309***	.221***	.420***	.428***	1										
진로성숙도 전체	.699***	.654***	.697***	.767***	.668***	1									
대인관계 어려움	-.191***	-.159*	-.314***	-.272***	-.323***	-.359***	1								
자기명확성 부족	-.303***	-.237***	-.440***	-.490***	-.350***	-.520***	.504***	1							
경제적 어려움	-.202***	-.069	-.170*	-.125	-.125	-.197***	.250***	.228***	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307***	-.130	-.289***	-.419***	-.206***	-.385***	.212***	.413***	.268***	1					
직업정보 부족	-.461***	-.160*	-.371***	-.281***	-.475***	-.497***	.234***	.299***	.199***	.257***	1				
신체적 열등감	-.140	-.178*	-.359***	-.329***	-.207***	-.348***	.212***	.317***	.138	.333***	.268***	1			
흥미부족	-.462***	-.400***	-.223***	-.434***	-.276***	-.516***	.237***	.471***	.152*	.327***	.283***	.241***	1		
미래불안	-.506***	-.283***	-.471***	-.366***	-.268***	-.545***	.248***	.389***	.373***	.427***	.484***	.350***	.451***	1	
진로장벽 전체	-.191***	-.159*	-.314***	-.272***	-.323***	-.359***	1.000***	.504***	.250***	.212***	.234***	.212***	.237***	.248***	1

* *p<.05,* ***p<.01,* ****p<.001*

나.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54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22이상으로 10을 넘지 않았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통계량이 1.8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6>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5.245	.159		32.920	.000		
대인관계 어려움	-.071	.048	-.093	-1.490	.138	.719	1.392
자기명확성 부족	-.133	.051	-.185	-2.600**	.010	.555	1.803
경제적 어려움	.030	.035	.050	.861	.390	.819	1.22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41	.043	-.060	-.949	.344	.712	1.405
직업정보 부족	-.148	.039	-.233	-3.786***	.000	.739	1.352
신체적 열등감	-.047	.040	-.069	-1.172	.243	.806	1.241
흥미부족	-.138	.041	-.218	-3.412***	.001	.686	1.457
미래불안	-.118	.041	-.207	-2.897**	.004	.548	1.825
R제곱(수정)=.508(.486), F=22.619***(.001) Durbin-Watson=1.894							

* *p<.05;* ** *p<.01,* *** *p<.001*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8로 나타났고(p<.01), 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23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흥미부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1로 나타나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또, 미래불안의 경우에도 -.20으로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1).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흥미부족, 미래불안이 높으면 진로성숙도는 낮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다.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중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중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Ⅳ-7>과 같다.

<표Ⅳ-7>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4.920	.252		19.491	.000		
대인관계 어려움	-.011	.076	-.010	-.146	.884	.719	1.392
자기명확성 부족	.009	.081	.009	.109	.914	.555	1.803
경제적 어려움	-.004	.055	-.005	-.073	.942	.819	1.22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74	.069	-.076	-1.085	.280	.712	1.405
직업정보 부족	-.243	.062	-.268	-3.905***	.000	.739	1.352
신체적 열등감	.110	.063	.114	1.734	.085	.806	1.241
흥미부족	-.245	.064	-.272	-3.817***	.000	.686	1.457
미래불안	-.210	.064	-.260	-3.263***	.001	.548	1.825
R제곱(수정)=.389(.361), F=13.929***(.001) Durbin-Watson=2.107							

* *p<.05,* ** *p<.01,* *** *p<.001*

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6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흥미부족이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27로 역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미래불안의 경우에도 -.26으로 결정성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 흥미부족, 미래불안이 높으면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은 낮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라.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중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중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Ⅳ-8>과 같다.

<표Ⅳ-8>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4.280	.316		13.554	.000		
대인관계 어려움	-.056	.095	-.048	-.595	.553	.719	1.392
자기명확성 부족	-.024	.101	-.022	-.240	.810	.555	1.803
경제적 어려움	.035	.069	.039	.513	.609	.819	1.22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67	.086	.063	.781	.436	.712	1.405
직업정보 부족	.010	.078	.011	.134	.893	.739	1.352
신체적 열등감	-.065	.079	-.062	-.815	.416	.806	1.241
흥미부족	-.322	.080	-.330	-4.001***	.000	.686	1.457
미래불안	-.121	.080	-.138	-1.499	.136	.548	1.825
R제곱(수정)=.182(.145), F=4.878***(.001) Durbin-Watson=1.965							

* *p<.05;* ** *p<.01;* *** *p<.001*

흥미부족이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33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흥미부족이 높으면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은 낮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마.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중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중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Ⅳ-9>와 같다.

<표Ⅳ-9>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5.797	.271		21.356	.000		
대인관계 어려움	-.098	.081	-.086	-1.204	.230	.719	1.392
자기명확성 부족	-.277	.087	-.260	-3.180**	.002	.555	1.803
경제적 어려움	.048	.059	.055	.815	.416	.819	1.22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04	.074	-.004	-.052	.959	.712	1.405
직업정보 부족	-.122	.067	-.129	-1.823	.070	.739	1.352
신체적 열등감	-.153	.068	-.152	-2.243*	.026	.806	1.241
흥미부족	.117	.069	.124	1.692	.092	.686	1.457
미래불안	-.259	.069	-.308	-3.747***	.000	.548	1.825
R제곱(수정)=.353(.323), F=11.928***(.001) Durbin-Watson=2.044							

* *p<.05*, ** *p<.01*, *** *p<.001*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성숙도의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6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1$). 신체적 열등감이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15로 유의하게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미래불안의 경우는 -.30으로 확신성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 신체적 열등감, 미래불안이 높으면 진로성숙도의 확신성은 낮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바.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중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중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Ⅳ-10>과 같다.

<표Ⅳ-10>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5.832	.254		22.940	.000		
대인관계 어려움	-.029	.076	-.027	-.375	.708	.719	1.392
자기명확성 부족	-.251	.081	-.251	-3.085**	.002	.555	1.803
경제적 어려움	.054	.055	.066	.978	.329	.819	1.22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84	.069	-.191	-2.659**	.009	.712	1.405
직업정보 부족	-.048	.063	-.054	-.772	.441	.739	1.352
신체적 열등감	-.103	.064	-.110	-1.623	.106	.806	1.241
흥미부족	-.169	.065	-.191	-2.604**	.010	.686	1.457
미래불안	-.042	.065	-.053	-.652	.515	.548	1.825
R제곱(수정)=.356(.327), F=12.094***(.001) Durbin-Watson=1.874							

* *p<.05,* ** *p<.01,* *** *p<.001*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5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19로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흥미부족의 경우에도 -.19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1).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흥미부족이 높으면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은 낮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사.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하위변인 중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중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Ⅳ-11>과 같다.

<표Ⅳ-11>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5.394	.256		21.095	.000		
대인관계 어려움	-.162	.077	-.158	-2.113*	.036	.719	1.392
자기명확성 부족	-.120	.082	-.125	-1.466	.144	.555	1.803
경제적 어려움	.016	.056	.020	.283	.777	.819	1.22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11	.070	-.011	-.152	.879	.712	1.405
직업정보 부족	-.340	.063	-.398	-5.404***	.000	.739	1.352
신체적 열등감	-.023	.064	-.026	-.362	.718	.806	1.241
흥미부족	-.073	.065	-.086	-1.129	.261	.686	1.457
미래불안	.044	.065	.057	.671	.503	.548	1.825
R제곱(수정)=.297(.265), F=9.259***(.001) Durbin-Watson=1.946							

* *p<.05*, ** *p<.01*, *** *p<.001*

대인관계 어려움이 진로성숙도의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5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직업정보 부족이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39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p<.001).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어려움과 직업정보 부족이 높으면 진로성숙도의 준비성은 낮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장벽 인식 정도,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평균 3.50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각각의 평균은 독립성(3.96), 확신성(3.73), 준비성(3.59), 결정성(3.13), 목적성(3.1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시에는 목적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및 진로는 자아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69] 본 연구의 결과에서 목적성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는 것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내적 가치보다 현실적 가치를 더 추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대인들이 직업 및 진로를 통한 자아실현보다 경제적 보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는 실용음악(3.67), 성악(3.48), 국악(3.3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국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수준은 평균 2.66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의 각 하위요인의 평균은 경제적 어려움(3.06), 직업정보 부족(2.95),

69) 이기학·한종철(1997). 앞의 글. p.248.

미래불안(2.95), 대인관계 어려움(2.66), 신체적 열등감(2.59), 자기명확성 부족(2.48),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2.30), 흥미부족(2.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8가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목적성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점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인식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고, 이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직업과 진로선택 시에 경제적 보상 등과 같은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와 방향에 따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음악전공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로장벽을 왜곡 없이 바르게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70]

넷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장벽의 차이는 국악(2.72), 실용음악(2.64), 성악(2.6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별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는 흥미부족, 미래불안의 경우에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 외의 하위요인에서는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진로성숙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국악전공 학생들이 진로장벽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장벽을 해소하고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상담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는 r=-.359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진로장벽의 8가지 하위요인 모두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

70) 황매향·김연진·이승구·전방연(2011). 앞의 글. pp.187~194.

여섯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명확성 부족(-.18), 직업정보 부족(-.23), 흥미부족(-.21), 미래불안(-.20)의 하위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흥미부족, 미래불안이 높으면 진로성숙도는 낮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진로성숙 수준을 높이고 진로발달을 이루는 과정에서 진로장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조사하고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진로지도 및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세우고 검증한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는 실용음악(3.67), 성악(3.48), 국악(3.3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별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는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의 경우 모두 실용음악이 높고, 국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준비성의 경우는 성악과 실용음악이 높고, 국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다른 전공에 비하여 국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낮으며, 이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장벽의 차이는 국악(2.72), 실용음악(2.64), 성악(2.6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별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는 흥미부족의 경우 국악(2.47)이 높고, 실용음악(2.09)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래불안의 경우는 성악(3.16)이 높고, 실용음악(2.75)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외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전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전공별 진로성숙도 차이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국악전공 학생들이 진로장벽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장벽을 해소하고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상담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명확성 부족(-.18), 직업정보 부족(-.23), 흥미부족(-.21), 미래불안(-.20)의 하위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이 받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은 각기 다르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진로장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의 진로장벽을 해소하고 올바른 진로선택과 진로계획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교육과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고라희(2016).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9). **학교진로상담 제2판**. 서울: 학지사.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충기(1981). **생애교육**. 서울: 시공사.

김충기·장선철(2006).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김태경(2016). 실용음악 전공생들의 취업진로선택에 관한 인식도 연구 -수도권 소재 대학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파주: 정민사.

박지현·조영일·신희망·장선화·안소라(2015).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음악학과편**.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2(2). 251-262.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원영·김지영(2013).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통한 대학생의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양은주(2017).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예술교육연구. 15(4). 55-74.

이기학·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이보현(2013).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슬(2016).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임언·정윤경·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RR 91-05.

장이슬·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정환호(2016).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혜윤(2017).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숙현(2007).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지연(2018).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7(2). 265-290.

황매향·김연진·이승구·전방연(2011).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2판 - 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오-**. 서울: 학지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www. keis. or. kr. (2019. 4월 접속)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

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취업통계조사 브로셔. https://kess.kedi.re.kr/index. (2019. 6월 접속)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www.kedi.re.kr/. (2019. 4월 접속)

ABSTRACT

The Investigation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Jang, Myeaong Ji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necessary baseline data needed for appropriate career guidance and education for music major ing undergraduates. This objective was achieved by investigating the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levels recognized by music major undergraduates, and also by examining the effects that career barrier s have on career maturity levels. A total of 195 students out of 3 dif ferent four-year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consisting of majors of the department of vocal music, majors of vocal music within the dep artment of practical music, and majors of the department of traditiona l Korean music, were chosen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were given surveys regarding questions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 rity level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mainly 3 different areas: gener al characteristics, career maturity levels, and career barriers, with a t otal of 68 survey questions. Out of the distributed questionnaires, 189 questionnaires were retrieved and the data of 184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cluding five insincere responses. The concluding results o 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sub-components of career maturity levels of all music majors, the most highly recognized sub-component was indepe

ndence (3.96), followed by certainty, readiness, determination, and pur pose (3.11). Furthermore, the difference in career maturity levels acco rding to different departmen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tin ction, with majors of vocal music within the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having the highest maturity levels (3.67), followed by majors o f the department of vocal music (3.48) and majors of the department of traditional Korean music (3.36).

Second, regarding the sub-factors of career barriers recognized by all music majors, the most highly recognized sub-factor was financial difficulties (3.06), followed by lack of career information, unstable fut ure prospects, interpersonal difficulties, sense of physical inferiority, la ck of self-identification, conflict with relevant others, and lack of inte rest (2.26). Furthermore, the difference in career barriers according to different departments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tinctio n, with majors of the department of traditional Korean music showin g the highest level of career barriers (2.72), followed by majors of th e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2.64), and majors of the department of vocal music (2.63).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levels of all music major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 t negative correlation, at r=-.359.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effect s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maturity levels, the sub-factors of lack of self-identification, lack of career information, lack of interest, and unstable future prospects we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care er maturity levels.

Coll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usic majoring undergraduates lack purpose within their careers and recognize financ ial difficulties as one of their main career barriers. In addition, among the majors of the 3 aforementioned departments, majors of the depart ment of traditional Korean music were found to especially require ap propriate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resolving career barriers and e nhancing career maturity levels.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caree

r maturity levels declined according to higher career barriers, suggesting that career barriers act as an decisive variable that prevents students from developing their careers.

Finally, the author hopes that further research based on this study, on the part of different departments of music and music education circles, can lead to appropriate career developments for all music undergraduates. By resolving th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levels of music majors,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can help each music undergraduate ultimately realize their individual goals in life.

부 록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진로장벽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장벽을 조사하는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음악대학 진로교육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설문지는 개인적 특성, 진로성숙도, 진로장벽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응답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약 10분 이내입니다.
모든 문항에 정해진 답은 없으며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응답하시는 모든 내용은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장명진

jmj2794@naver.com

1. 개인적 특성 (1-3)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성악 ② 실용음악 ③ 국악
3. 현재 몇 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2. 진로성숙도 (1-2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해놓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진로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공을 결정했을 때 진로도 고려해서 결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음악과 관련된 직업이 아니어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빠른 승진과 출세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음악과 관련된 직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직장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만큼 잘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음악과 관련된 분야가 아닌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잘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소신대로 직업을 선택해야 나중에도 후회 없이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진로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원하는 직업이 있어도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교 또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직업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지금은 대학생의 신분이지만 졸업 후 직장생활에 대해 종종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음악과 관련하여 미래에 유망한 직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장벽 (1-40)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진로나 직장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장생활에서 일에 대한 어려움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보다 혼자서 일하는 것이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처음 본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기 때문에 직장동료들과도 금방 친해질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엇이든 습득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진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도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을 할 때 의견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난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 혹은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도 선택의 폭이 넓다.	①	②	③	④	⑤
12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형편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경제적 문제(돈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4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유학을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데에 있어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과 가족들은 내가 음악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원하는 진로와 부모님과 가족의 기대가 달라 부딪힌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원하는 진로가 있더라도 부모님이나 가족 등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과 가족들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원하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잘할 수 있는 진로와 직업의 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5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사회가 원하는 외모의 기준에 맞춰 나 스스로를 압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나의 건강이 문제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 열등감이 나의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의 신체적 조건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나의 외모 덕분에 덕을 본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음악을 할 때 흥미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음악 관련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가 선택한 진로에 점점 흥미를 잃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진로에 있어서 딱히 흥미가 가거나 선택하고 싶은 분야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전공공부는 어렵지만 공부할수록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졸업 후 취업난을 뚫고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음악계통 직업의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계약직이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 진로를 결정하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까봐 불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9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내가 취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시대의 흐름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지만 나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차분히 나의 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